

홍준표·유승민 추격전에 속 타는 원희룡

윤석열 지지 이탈 민심 흡수하며 격차 좁혀 홍준표 여론조사서 8.1% 첫 '톱4' 자리 올라 원희룡 인지도 높이기 집중... "차별성 부각"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의 추격세가 무섭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으로부터 이탈한 전통적 보수 진영의 표심을 흡수하면서 윤 전 총장과 격차를 점점 좁히는 양상이다.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3~24일 성인 2015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 95%±2.2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한 결과, 홍 의원은 여야 주자를 뺀 뒤 8.1%를 기록해 처음으로 '톱4' 자리에 올랐다.

범보수 후보 적합도에서도 지난 조사에 이어 4.8%포인트 오른 20.2%를 기록, 처음으로 20%대에 진입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윤 전 총장이 지난 조사보다 2.6%포인트 오른 53.3%를 기록해 여전히 선두를 지켰지만, 1강 1중으로의 구도 재편이 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보수 진영 표심의 이동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이번 조사 중 여야 전체 후보 적합도에서 윤 전 총장은 보수 진영의 텃밭인 부산·경남 지역에서 5.6%포인트, 대구·경북 지역에서 7.7%포인트가 빠졌다.

결국은 윤 전 총장에서 빠지는 지지율이 당내 터줏대감인 홍 의원과 유 전 의원에겐 향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여론 지지층의 역선택 성향이 반영된 결과라고 하지만 당사자들은 고개를 갸웃한다.

홍 의원은 24일 SNS에 올린 글에서 "우리 당의 취약 계층인 20~40대에서 지지율이 오르는 것은 확장성이 커지는 것"이라며 "추석 전후로 골든 크로스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도 26일 출마선언문을 통해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후보로는 필패"라며 "경선이 본격화하고 후보 간 토론 등이 이뤄지면 차별성이 부각돼 앞선 후보들과의 격차도 좁힐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가 26일 오후 광주를 방문, 국립 5·18 민주묘지의 홍남순 열사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속이 타는 분위기다.

개혁 소장파로 한때 당을 대표하는 얼굴 중 하나였던 원 전 지사는 대담집을 내는 등 인지도를 높이는 데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원 전 지사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경선이 본격화하고 후보 간 토론 등이 이뤄지면 차별성이 부각돼 앞선 후보들과의 격차도 좁힐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때 윤 전 총장을 위협할 것으로 예상됐던 최 전 원장 측은 지지율 정체 속에 일부 캠프 실무진이 업무에서 손을 뗐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등 더욱 뒤숭숭한 분위기다.

최 전 원장은 CBS 라디오에 나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후보라는 점을 보이고 이를 받아들여 주시면 지지율은 서서히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원론적 반응을 보였다. 연합뉴스

장애인 박물관·미술관 이용 편의 향상 추진

위성곤 의원 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사진)은 장애인들이 박물관과 미술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정부에 실행 조사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가가 매년 장애인의 박물관·미술관 이용 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조사 결과를 담은 종합보고서를 발간해 기본시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정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중 장애인의 이용만



족도, 시설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실행 조사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장애인의 관심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위성곤 의원은 "생활체육에 대한 실태조사가 매년 이뤄지는 것과는 달리 장애인의 박물관, 미술관 이용에 대한 연례적인 실태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도의원 7명 정세균 지지 선언 "균형발전 의지 유일한 후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7명 당내 대권 주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에 대한 지지를 26일 선언했다.

이날 지지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국 광역·기초의원들은 모두 539명으로 이중 제주도의원 7명이 포함됐다.

정 전 총리를 지지하는 도의원은 강성균·김대진·김용범·김태석·문경윤·조훈배·정민구 의원이다.

이들은 "이번 대선은 제4기 민주정부 창출이라는 중차대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 선거"라며 "민주당 이념·가치를 계승하고, 정책 재창출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이루기 위해 본선 경쟁력이 확실한 필승후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도권 초집중 체제를 타파하고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할 구체적 정책과 비전을 갖춘 후보를 원한다"며 "정 후보는 과거 행정복합도시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세종시를 지켜내는 등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이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평가했다. 이상민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8회 임시회 5분 발언

"제주 보건·의료예산 전국 평균 상회해야"

양영식 공공보건 강화 주문

양영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갑·사진)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고, 제주도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정책 우선 순위에서 밀려난 공공보건의료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26일 촉구했다.

양 의원은 이날 제주도의회 제39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문했다.

그는 "바이러스 전파가 지속하고, 코로나19 유행이 오고 가기를 반복해도 우리의 일상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선 전국 최저 수준인 보건예산을 전국 평균 이상으로 편성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공공보건의료정책



이 내년부터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양 의원은 "공공보건 조직도 정비해야 한다"며 "상시적인 보건 위기와 돌발 보건 의료 욕구에 대응할 수 있게 공공보건의료 정책 담당부서와 보건소 조직을 확대하고, 인력 충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이같은 강력한 공공보건의료정책으로 심각한 의료 인력 부족 문제와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서귀포 지역 의료 격차, 인구 고령화·기후변화 위기 문제 등에 대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2공항 정석비행장 대안론 갈등만 조장"

강연호 "또 거론시 강력 투쟁"

정석비행장이 들어선 표선면을 지역 구로 둔 국민의힘 소속 강연호(사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성산 제2공항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정석 비행장 활용방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강 의원은 26일 제주도의회 제39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정석비행장은 2018년 제2공항 후보지 평가 결과 10개 후보지 중 최하위를 기록해 탈락한 곳"이라며 "항공기술적인 안전성과 편의성, 환경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아 탈락한 정석비행장을 (제2공항 대안으로) 들먹이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환경부의 제2공항 전략한



경영향평가 재보완서 받아 결정 이후 제2공항 정상 추진 의지를 밝혔다"라며 "제2공항 건설 사업이 정상 추진 중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불측 정석비행장을 대안으로 꺼낸 것은 정책적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새로운 분열과 갈등만을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정석 비행장 대안론을 제기한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을 겨냥해 "특히 제2공항과 같은 핵심 인프라 입지 결정이 정치인들의 정치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좌지우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석비행장 대안론을 또 거론한다면 지역주민과 함께 강력한 반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알림

2021 JDC와 함께
생각을 증폭시키는
NIE 공모전

공모기간 2021년 10월 18일(월)

공모대상 도내 초·중·고등학생

공모분야 NIE 학습활동 및 스크립 (기사활동: 2021년 1월1일 기준 신문부터 가능)

형식 활동지(크기 자유) 10매 이상

시상

▶개인 > 대상 1명(상금 40만원)
> 금상 4명(각 20만원)
> 은상 6명(각 10만원)
> 동상 11명(각 5만원)

▶단체 > 대상 1팀(상금 40만원)
> 최우수 9팀(각 15만원)
> 우수 8팀(각 10만원)

▶지도자 및 지도교사상: 1명(상금 20만원)

*단체상은 일반 및 학교부문 구분 없음. 단, 일반부문은 팀당 3명 제한. 학교는 학급 또는 동아리, 부문별 출품작 수와 작품 수준에 따라 시상내역은 달라질 수 있으며, 개인과 팀부문 이종지원은 안됩니다.

접수처 우편(제주시 서서로 154 한리일보사 4층 편집국 NIE 공모전 담당자 앞) 또는 방문 접수

문의 010-2024-5692

100세 시대, 새로운 길로 향한 도전!

학생모집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서귀포오석학교에서는 2021/22학년도 학사 일정 시작에 맞춰 다음과 같이 각 과정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다 음

○ 모집과정 및 인원

과정	문해교육과정 (초등문해, 초등문해)						경정고시 교육과정	
	초등 문해 1	초등 문해 2	초등 문해 3	한글 기초	초등 문해 1	초등 문해 2	중학 문해	중고 과정
모집 인원	10명	10명	10명	10명	10명	10명	10명	10명
수업 시간	10:00-12:00 (주2)			19:00- 20:30	19:00-21:00 (야간)			19:00- 21:55

○ 모집대상: 성인, 어르신, 결혼이주여성, 학교 밖 청소년 등

○ 모집기간: 9월 3까지(수시 입학 가능)

○ 개강일: 9월 6일(화)
* 코로나19로 인해 개강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수업시간:

- 오전 문해교육과정: 낮 10시 ~ 12시(주 3회)
- 오후 문해교육과정: 저녁 7시 - 9시
- 중졸·고졸 검정과정: 저녁 7시-9시 55분

○ 수업료: 전액 무료

○ 문의: ☎ 762-2487(오전 10시 이후 통화가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동로 43-2(서귀동)
(구. 서귀포소방서 부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서귀포오석학교
서귀포오석학교
Seogwi-po Oseok School
http://www.oseok.co.kr

[2021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운영기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서귀포시 -

국민내일배움카드 소지자 환영

전기(산업)기사 필기 취득과정(야간반)

교육기간 2021.11.01~2022.02.17(3.5개월, 180시간)
교육시간 19:00~22:00(평일 주간, 일일 3교시)
대 상 실업자·재직자·일반 ☎ 725-5545
교육내용 전기자기학, 전력공학, 전기기기, 회로이론(제어),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기능사취득(필기+실기) 과정(주말반)

대 상 실업자·재직자·일반 ☎ 725-5545
교육기간 2021.11.06~2022.01.29(3개월, 132시간)
교육시간 15:00~22:00(토,일, 일일 6교시)
교육내용 전기이론, 전기기기, 전기설비, 실기 대비

커피 바리스타 과정

대 상 실업자·재직자·일반
교육기간 상시 모집 중 ☎ 725-5545
교육시간 오전, 오후, 야간 매일 3시간씩
교육내용 자격증 취득 및 창업 관련

컴퓨터(OA관련, 전산회계) 과정

대 상 실업자·재직자·일반
교육기간 상시 모집 중 ☎ 725-5545
교육시간 오전, 오후, 야간 매일 3시간씩
교육내용 OA관련(사무자동화, ITQ, 컴활2급), 전산회계

2021년 제1회 전기기능사실기 9명 응시 9명 합격(100%)
문*민, 한*남, 강*열, 김*현, 옥*환, 이*석, 정*완, 최*영, 최*혜(총9명)

제주직업전문학교

제주시 서서로 81 (삼도1동) 중앙여중 정류장, 진영마트 맞은편
064)725-5545 (http://www.jejuvs.co.kr)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골요목

유라조생	4년생
황금향	5년생
감평(레드향)	3,4년생
한라봉	4년생
천혜향	4년생
성전온주생	2년생
유라조생	1년생
천혜향	1년생
감평(레드향)	1년생
탱자묘	1년생

한림종묘사

010-3690-2453

감골 신품종 분양

2022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윈터프린스, 제라온(레몬), 한라봉, 탐나는종, 사리영신(중천혜향), 나스미(카라향), 탐빛1호, 명유자, 아마니스

조생

유라조생, 하계조생, 궁천 오하라베니(궁천베이지), 히로시마 7호, 일남1호, 명자묘목(1000본 이상)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